

일본 남녀 대학생의 한국음식에 대한 인식 및 기호도 조사 연구

한재숙 · 한준표* · 김정숙 · 김소영

영남대학교 가정관리학과, *대구효성카톨릭대학교 식품가공학과

본 연구는 국제화에 대비하여 한국음식의 상품화와 보급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자 외국인이 가지는 한국 음식에 대한 기호도를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日本 京都府立大學의 남녀 대학생 283명을 대상으로 한국 음식에 대한 인식 및 기호도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.

반 이상(53.2%)의 학생들이 한국 음식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한국 방문경험이 있는 학생은 소수(6.4%)였으나 대부분(93.2%) 한국 음식을 시식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. 한국 음식의 외관에 대한 첫인상은 67.8%의 학생들이 좋다고 평가하였고, 74.1%의 학생이 시식한 후의 느낌이 좋다고 응답하여 첫인상보다 시식한 후의 느낌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. 시식 후 한국 음식이 식성에 적합하다(83.1%)고 한 학생들이 식성에 부적합하다(16.9%)고 응답한 학생보다 많았으며 식성에 적합한 이유로는 '맛있어서'라는 대답이 92.6%로 가장 많았고, 부적합한 이유로는 '매워서'라는 대답이 68.3%로 가장 많았다. 한국 음식에 대한 인지도는 김치(97.2%), 갈비(91.5%), 비빔밥(89.8%), 콩나물(50.9%), 불고기(41.7%) 등의 순으로 높았다. 여학생과 식생활 관련학과 학생들이,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과 한국 방문경험이 있는 사람이, 또한 한국 음식에 대한 시식경험이 있는 사람 및 첫인상과 시식한 후의 느낌이 좋았던 사람의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다. 김치가 가장 많이 먹어 본 음식(93.6%)이었으며 다음으로 갈비(80.6%), 비빔밥(62.2%), 불고기(35.0%), 백김치(23.3%) 등의 순으로 시식경험이 많았다. 한국 음식에 대한 기호도에서 외관은 삼계탕이, 냄새는 불고기가, 맛은 삼계탕과 불고기가 가장 맛있는 음식으로 평가 받았고 한국의 시판김치를 일본의 시판김치와 비교했을 때 한국 김치에 대해 남학생은 '맵다'(67.2%), 여학생은 '맛있다'(65.7%)고 응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으며 한국김치가 식성에 부적합한 이유는 '맵다'(57.1%), '색이 너무 빨갛다'(28.6%), '냄새가 나쁘다'(28.6%) 등으로 나타났다.